

서 교육감 “청렴 리더십 보여달라”

전북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2차 회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주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주재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 부서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은 교육청 전체의 청렴 시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전략을 보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개선 전략과제로는 △참여형 의사결정과 소통 강화로 창의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혁신 △청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계약 제도·관행 발굴

(조사)·개선 △지속 가능한 전북교육청형 청렴생태계 구축·운영 등이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부패 취약분야 개선은 교육감을 비롯해 간부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청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주재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 IB 교육 프로그램 확산 ‘박차’

‘IB PYP 수업평가 이해와 실제’ 직무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IB 교육 프로그램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도교육청 창조미래 회의실에서 초등교사 30명을 대상으로 IB PYP(초등과정) 수업평가 이해와 실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 연수는 IB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북교육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으로 IB 후보학교가 지정되는 등 IB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상 인원의 두 배 가까이 신청을 했다.

연수는 이론과 실습, 분임활동 등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의 IB 수업평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총 4개 주제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1부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 미래형 수업평가 방향, IB 프로그램 교육철학 △2부 학습자 주도성을 살린 IB PYP 수업·평가의 실제, 개념기반 탐구 수업 △3부 IB 월드스쿨 인증을 위한 단계별 준비 사례 △4부 PYP 학교 운영 사례 등이다.

2차 연수는 오는 20일 운영된다.

IB 프로그램 학교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특강도 마련된다. 16일 전주

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진행되는 특강에는 IB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IB교육 전문가인 이기동 인하여 초빙 교수가 IB 프로그램 학교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민안성 미래교육과장은 “IB 교육은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고 서술형 평가, 토의·토론을 통해 학생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IB 교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국 섬서재경직업기술대 학생 대상 단기 문화체험

21일까지… 한국어수업·한국문화체험 등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5~21일 중국 섬서재경직업기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링코리아(Feeling Korea)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 대학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한국어수업과 한국문화체험이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대는 중국 섬서재경직업기술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 경상대학교와 합작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필링코리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졸업 후 전북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은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일환으로 14개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 전북의 우수 관광자원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전북대의 우수 교육 인프라도 소개해 한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섬서재경직업기술대학 학생들

은 전북대에 체류하며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기초 회화를 익히고,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한복체험, 한지체험, 비빔밥체험, 수제도장 만들기체험 등을 즐길 예정이다. 또한 전주 외에도 부여 백제문화단지나 서울을 방문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전북대학교 조하림 국제처장은 “이번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뿐만 아니라 전북대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단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하고,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oving Hands’ 2024학년도 하계 해외 봉사

전주비전대학교 학생 21명으로 구성된 ‘Loving Hands 봉사단’이 16~24일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2024학년도 하계 해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전주비전대학교 ‘Loving Hands 봉사단’ 발대식.

와 빼앗꼬 교회회를 방문해 혈액형 찾기, 리듬 트레이닝, 물로켓 실험 등 자

신들의 전공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르면 봉사단은 지난 11일 발대식을 갖고 대학의 인성교육 교과목인 ‘여행’ 시리즈와 연계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먼저 봉사단은 소금과 빛 국제학교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 주간 전북교육청, 21일까지 추모 현수막 게시 추모 공간 운영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21일까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활동 보호 대상인 교원들을 위로하고 순직 교원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추모 기간 본청을 비롯해 전북교육인권센터,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는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지키는 힘이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다.

더불어 17~18일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 추모 공간도 운영된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진은 18일 오전 9시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이번 추모 주간을 통해 순직 교원을 추모하고,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18일까지 유·초등 수석교사 개념기반 탐구 수업 콘서트 주간을 운영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 유·초등 수석교사 ‘개념기반 탐구 수업’ 콘서트 운영

18일까지 진행… 공개수업·전체 워크숍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18일까지 유·초등 수석교사 ‘개념기반 탐구 수업’ 콘서트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업열기와 전체 워크숍으로 이뤄졌다.

먼저 수업열기는 15~17일 3일간, 13명의 수석교사들이 각 소속기관에서 관내 224명의 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사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18일 열리는 전체 워크숍은 수업 열기 참가 교사와 수석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문가 패널토의, 13개 공개수업과 연계한 분임 활동을 통해

개념기반 탐구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모든 수업은 도내 유·초등 수석교사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설계된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주제로, 현장 교사들이 보다 쉽게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수업 콘서트를 통해 수석교사가 주도하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여러 선생님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여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폭력 NO!’… 학폭예방 릴레이 콘서트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 개최… 개그맨 이광섭 등 참여

KBS미디어가 주관… KBS미디어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오후 2시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KBS미디어가 주관하는 릴레이 토크 콘서트는 학생·학부모·교원·유명인사가 패널로 참여해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 정책 등을 소개하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우전중학교 1·2학년 학생 340여 명이 참석하며, 개그맨 이광섭, 가수 선예 등이 출연한다.

특히 패널로 참여하는 전주우전중

송기는 교사와 전북교육청 한상균 장학사는 학교폭력 사례와 학교폭력 대처 방법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돌발 퀴즈 이벤트 등도 진행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교육가족 모두가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크 콘서트는 KBS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장은성 기자

유럽 어학연수·교환학생 기회

전북대생 6명,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전북대학교 학생 6명이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도 장학생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발된 학생들은 2024년 9월 유럽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어학연수 부문에 김종연·성지현·한동호(독일학과), 송지우(독어교육과) 학생과, 교환학생 부문에 이상화(스페인·중남미학과), 임진아(프랑스·아프리카학과) 학생 등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유럽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9년째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장학재단의 김정옥 이사장은 지난 2019년 20억 원을 전북대에 기부, 이기금을 통해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유럽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2022년에는 삼성문화재단과 협력해 60억 원을 기부해 회계를 모았다.

한편,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난 12일 오후 3시(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영산홀에서 열렸다.

/장은성 기자